



**동우**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제280호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임보미(편집국) 장재웅(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문영현(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최화정(편성전략본부) 채성일(콘텐츠플러스센터) 김민자(보도본부)  
정규현(전략기획본부) 강혜빈(콘텐츠사업본부) 박동엽(경영지원국)  
김도윤(동아E&D) 오혜정(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879)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

## “디지털 저널리즘과 새로운 제작문화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



① 3월 31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CC큐브에서 열린 창간 103주년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손수건을 던지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손수건 색상은 2023년 올해의 색으로 꼽힌 '비바 마절다'로 흐름차게 성장해나가는 동아의 도전과 열정을 의미한다. ② 창간 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③ 창간 기념식 사회를 맡은 보도본부 편집부 흥우라 기자. 총 기자는 채널A 메인 뉴스프로그램 〈뉴스A〉 진행을 맡고 있다. ④ 근속 10년 사원들이 김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⑤ 기념식 참석자들이 동아일보 103년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 CC큐브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163인치 LED 스크린 2개면이 새로 설치됐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화성

### 동아일보 창간 103주년 기념식…콘텐츠 진화 향한 도전 다짐

“언뜻 지금 우리의 도전은 103년 전의 것과 달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만큼은 변함없이 맞닿아 있습니다.” (김재호 동아일보 채널A 회장)

동아일보 창간 103주년 기념식이 3월 3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동아의 변치 않는 뜻으로 “독자의 곁에서 진실된 저널리즘을 전하는 것, 이를 통해 시대의 위기를 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것”을 꼽았다.

김 회장은 “지난 103년 간 동아일보는 어떤 시대 상황에도 늘 독자의 곁에 있었다”며 “모든 도전에는 어려움과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내겠다는 의지로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동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 도전, 그리고 도전

이날 창간기념사에서 김 회장은 103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동아의 도전 여정을 조명했다. 그

는 “그 시절 인촌 선생과 동료들은 지금에 비춰봐도 존경스러운 청년 창업가였다”며 “일제의 겁박 속에 서도 언론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꿈을 실천으로 옮겼고, 창간을 준비하는 6개월 동안 남과 북을 직접 누비며 전국의 인사들을 만나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창간 이후 숱한 기사삭제와 배포중단, 정간, 폐간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지혜와 용기로 민족 언론을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디지털 분야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동아의 혁신과 도전 또한 화두로 삼았다. 김 회장은 “올해도 동아일보는 동아의 진실된 가치를 더욱 탁월한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전에 없던 도전에 나섰다”며 “디지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월리티 저널리즘을 블로깅으로 만들기 위해 제작과 콘텐츠, 유통 모두에서 차원이 다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최근 제작 분야에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전면도입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면과 디지털을 넘나드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자들은 현장과 독자에 더 가까워

지고 콘텐츠 또한 더욱 생생하고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편집국의 제작방식 및 업무문화 변화와 관련해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통해 새 체계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그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 디지털 콘텐츠 성과 주목

김 회장은 콘텐츠 분야의 도전과 진화도 언급했다. 올해 편집국에 새로 생긴 ‘디프런티어 센터’ 및 ‘디지털콘텐츠 편성표’에 대해서는 “동아의 월리티 저널리즘을 디지털로 펼쳐낼 것”이라며 “동아가 지향하는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보도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년 간 동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저널리즘 브랜드로 자리잡은 ‘하이로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최근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의 혁신 여정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 저널리즘과 새로운 제작 문화라는 바다를 향해 함께 더 넓고 깊게 나아가자”며

“기존의 관행과 제약들을 뛰어넘어 개성을 살린 뜻을 달고 더 자유롭고 힘찬 항해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 ● 확 달라진 CC큐브에서 첫 행사

이날 창간 기념식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멀티룸’으로 새롭게 태어난 CC큐브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D.D.D(Donga, Digital, Develop)’를 주제로 한 기념식은 두 개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구현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장기근속자 24명과 신입사원 10명 등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열린 장기 근속 표창 수여식에서는 40년 근속자인 김종진 부산 주례 독자센터 사장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송평인 논설위원, 안중선 문화 사업부 스포츠기획팀장, 곽도영 편집국 산업1부 기자가 각각 근속 30년, 20년, 10년을 대표해 공로패와 표창장 등을 받았다. 올해의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는 총 97명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표창장과 기념선물이 전달됐다.



# 4년 만에 돌아온 마라톤 축제

40개국 3만2000여 명 참가  
마스터스 참가자 절반 이상이 2030세대

마스터스 마라토너들의 축제로 불리는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이 4년 만에 광화문에서 다시 열렸다. 지난해 국내외 엘리트 선수 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된 데 이어 올해는 마스터스 부문 까지 다시 열리며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축제 분위기가 연출된 것. 3월 19일 열린 이번 마라톤에는 40개국에서 3만20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는 42.195km 풀코스 주자들과 풀코스를 2명 또는 4명이 나눠 달리는 릴레이 참여 주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설렘과 흥분이 가득한 얼굴로 새 봄이 다가오는 광화문을 만끽했다.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선수는 물론이고 러닝크루가 대거 참가한 마스터스 부문은 출발 이전부터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 풀코스 출발지점인 광화문 광장에는 서울시 김의승 행정부시장, 육현표 대한육상연맹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피터과 아디다스코리아대표, 조익성 동아오츠카 대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원종만 서울시 육상연맹회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이인철 스포츠동아 대표 등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에 빛냈다.

국내 유일의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및 세계 육상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서울마라톤은 올해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케일을 자랑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출발하는 10km 부문은 사상 최대 인원인 1만5000여 명의 젊은 러너들이 참가해 잠실벌을 누볐다. 참가 인파가 출발선을 빠져 나가는데만 30분 넘게 걸릴 정도로 대장관을 연출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2030 젊은 러너들

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마스터스 참가자 3만1500여 명 가운데 20대가 17.4%, 30대가 34.4%로 전체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다. 특히 10km 부문은 2030이 67.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 참가자도 40%에 육박했다.

더불어 올해 서울마라톤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참가자 등번호에 'amazing 70' 로고를 새겼다. 풀코스 출발을 앞두고는 백발의 참전 용사들이 22개국 해외 참전국의 국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행진을 벌여 감동을 자아냈다. 마라톤의 발상지인 동시에 참전국이기도 한 그리스의 에카테리니 루파스 주한대사는 도착지점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국제 엘리트 1~3위 선수에게 본국에서 제작한 특별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마라톤에서는 해외 초청 엘리트 국제 남자 부문의 에티오피아 국적 암듀오르크 와레렝 타디스(24)가 2시간 5분27초를 기록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엘리트 선수 남자부에서는 박민호(24·코오롱)가 2시간10분13초로 1위를 기록해 한국 마라톤의 부활을 알렸다. 여자부에서는 정다은(26·K-water)이 2시간28분 32초로 1위를 했다. 이번 대회는 채널A를 통해 생중계 됐고 채널A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과 함께 경기를 즐겼다. 대회 직후 각종 SNS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참가 후기와 사진, 동영상이 올라와 대회 열기를 실감케 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신강혁



① 3월 19일 열린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마스터스 부문 참가자들이 출발 지점인 광화문 광장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②~③ 서울마라톤에 참가한 2030 젊은 러너들.

## 금쪽사랑 휴가 도입 1년, 사원들 큰 호응

도입 이후 총 31명 사원 사용…절반 이상이 男직원

2022년 4월 신설된 동아미디어그룹의 '금쪽사랑 휴가'가 자녀를 둔 젊은 사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도입 1년을 맞았다. 지금 까지 동아일보와 채널A 양사에서 총 31명의 사원들이 해당 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특히 올 3월 신학기 입학 시즌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용자의 과반 이상(17명)은 남성직원들로, '좋은 아빠'가 되고픈 젊은 사원들의 열기가 느껴졌다는 평가다.

'금쪽사랑 휴가'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동아미디어그룹만의 복지제도로 △어린이집 입소 △초등학교 입학기 △시작기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쓸 수 있다. 특히 올 3월 신학기에 해당 휴가를 이용한 사원들 사이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다.

동아일보의 한 사원은 "아들이 초1에 입학해서 금쪽사랑 휴가를 썼는데 학부모총회의 유일한 아빠 참석자인 나를 아들과 아내가 무척 뿌듯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학기 1주일을 아이와 보내보니 확실히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아

이를 둔 사원들에겐 정말 의미있고 감사한 제도"라고 말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한 채널A 사원 역시 "덕분에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기에 일주일을 함께 등원할 수 있었다"며 "새 환경에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사원들 사이에서 아이의 일상과 함께한 1주일에 대한 후기가 활발히 공유되면서 보다 어린 자녀를 둔 사원들도 '금쪽사랑 휴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금쪽사랑 휴가'는 일반 휴가와 마찬가지로 자녀휴가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휴가는 자녀별로 부여되며, 종류별 휴가 기간은 휴일 포함 1주일이다. 중요한 시기 자녀와의 깊이있는 교감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휴가인 만큼 주 단위 사용이 권장되지만 필요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사원들이 일과 생활 모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지지할 계획이다.

경영지원국 인사팀 강홍민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민대홍



## 동아 디지털 편성표에 주목한 南亞 언론들

이샘물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국내 언론 유일 '디지털 미디어 인디아' 컨퍼런스 참석



'디지털 미디어 인디아'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영전략실 이샘물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동아일보는 올해 뉴스 플랫폼에 '디지털 편성표'를 도입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이 있는 심층 연재물을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현지 시간) 인도 멜리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인디아'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필자가 연단에서 발표한 동아일보의 디지털콘텐츠 편성표 소개를 주의깊게 들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주최하는 디지털 미디어 인디아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

아 언론사와 미디어 관련 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발행인 등이 참석한다. 각국의 미디어 트렌드와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오가는 자리다.

필자는 세계신문협회의 요청을 받아 인도로 날아갔고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내 언론사는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앞서 동아일보의 디지털 미디어 티브는 2022년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의 연차총회 및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아시아'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동아일보는 2020년부터 '하이로콘 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뉴스룸의 제작 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주기성과 정시성을 갖춘 심층 연재물을 '디지털콘텐츠 편성표' 형식으로 선보였다

필자는 동아일보가 왜 디지털 편성표를 도입했는지, 또 독자들은 심층 연재물을 통해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는지, 이렇게 소비된 뉴스는 어떻게 기자들의 브랜딩을 강화하는지를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동아일보의 다음 계획을 궁금해하며 질문했다. 미디어 기술 관련 업체들이 다가와 "동아일보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를 넘어 국외의 주목을 받는 동아일보의 넥스트 디지털 스텝이 궁금해진다.

한편 필자는 4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각 회원사 추천 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경영전략실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이샘물



여의도 IFC 연결 통로에 2023년 채널A 주요 프로그램 라인업을 알리는 파노라마 형태의 대형 광고가 게재된 모습.

## 채널A, 2023 큰 거 ON다! 강력한 라인업 기대

### <도시어부><강철부대><하트시그널> 등 간판 프로그램 총출동

새로운 계절의 꽃들이 만개하는 4월, 여의도 IFC몰과 더현대를 잇는 파노라마 로드가 채널A의 간판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졌다. 약 100m 길이의 통로 벽면을 장식한 건 출격을 앞둔 드라마 <가면의 여왕>과 <도시어부5> <하트시그널4> <강철부대3> 등 새롭게 귀환하는 채널A의 대표 프로그램들. 출퇴근길 직장인들과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광고를 바라봤다.

더현대로 이어지는 파노라마 로드 외에도 여의도의 대형 쇼핑몰 IFC몰 내부에

채널A 프로그램 라인업을 알리는 4층 높이의 대형 LED 광고를 내걸었다. 또 젊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 일대 버스에도 채널A 프로그램 광고를 진행 중이다. 채널A 광고를 실은 택시들도 도심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4월 셋째 주부터는 광화문 동아미디어 센터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첫 방송을 앞둔 <가면의 여왕>과 <하트시그널4>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최화정



▲ 여의도 IFC를 내부 4층 높이의 대형 LED에 게재된 채널A 광고.



▲ '큰 거 ON다' 문구를 부착한 버스 래핑 및 택시 외부 상단 바 광고.

## 베일벗은 <도시횟집><블랙2>…매주 목·토 밤 책임진다

**목요일 밤 10시 30분 <도시횟집>…신청자 3만 팀 몰리며 대박  
토요일 밤 10시 40분 <블랙2>…영혼 파괴 범죄 파헤쳐**



도시어부 멤버들의 횟집 운영기로 돌아온 &lt;도시횟집&gt;.



&lt;블랙2&gt;는 감독과 배우가 2인1조 스토리텔러가 되어 범죄를 파헤친다.

기대를 모아왔던 채널A 신작들이 3월 넷째 주 연이어 공개됐다. <도시횟집>과 <블랙2>가 그 주인공.

먼저 도시어부 팀이 선보이는 전무후무 한 '팝업 횟집' 예능 <도시횟집>이 이를 먼저 시청자들과 만났다. <도시횟집>은 낚시에 진심인 도시어부 출연자들이 자연산 회를 시청자에게 직접 대접하고 싶어 시직한 진정성 100% 프로그램이다. 낚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오픈조차 불가능하고, 잡히는 어종에 따라 다른 요리를 준

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과 실력 그리고 체력의 삼박자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

3월 23일 첫 방송 후 댓글은 뜨거웠다. '이 기획을 진짜 진행할 줄이야' '예능을 표방한 극한직업'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등의 호응이 쏟아졌다. 총지배인 이덕화, 요리담당 이경규 김준현, 만능 멀티맨 이수근, 회주방장 이태곤, 홀매니저 윤세아의 캐미가 가득한 도시횟집에는 현재 3만 팀의 신청자들이 대기 중이다.

6년전 도시어부 촬영장에서 이경규 씨

는 "횟집 해서 미끼 값 별자"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업인이 아니면 영리활동이 제한돼 수익금을 '미끼 값'에 쓸 수 없는 건 함정. 대신 <도시횟집>은 손님들의 만족도에 따라 기부금을 받아 이를 '치어방류 사업'이라는 더 큰 뜻에 쓰기로 했다.

이런 정성에 용왕님도 화답했는지 한 마리도 잡기 힘들다는 돌돔, 참돔, 김성돔, 긴꼬리벵에돔, 농어로 만선을 하기도 했다. 가자마구이부터 볼락튀김, 떡전어구이, 전갱이 회갈밥, 연포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산요리의 향연 또한 관전 포인트다.

한편, 연이어 베일을 벗은 <블랙2>는 '영혼파괴자들'이라는 부제와 함께 돌아온 범죄 다큐 스릴러다. 시즌1에서 연쇄살인 등 강력 범죄를 주로 다뤘다면, 시즌2는 일상 범죄의 속성을 파헤친다.

3월 25일 첫 방송은 사이비 종교인 안산 'Y교회'의 악랄한 만행을 고발했다. 시내 주택가에 자리잡고도 특유의 폐쇄성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비종교의 실체를 피해자의 용감한 증언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정말 충격적', '너무 소름 돋는다', '울화가 치민다'며 공분했다.

제작진은 일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시즌2를 통해 학교폭력, 다단계, 가정폭력 등 일상 속 범죄자들의 수법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응법도 함께 고민해 전할 계획이다.

제작본부 1CP 서혜승  
드라마플러스본부 드라마플러스1팀 오동현

## 고기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고기서 만나>

### 고기 부위별로 탐구…‘먹방 대가’ 강호동 MC 맡아



개그맨 강호동과 뮤지컬 배우 김호영, 국악요정 송소희가 진행을 맡아 고기 맛의 비법을 파헤친다.

'고기'에 진심인 자들이 모여 오로지 '고기'만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4월 11일 첫 방송한 <고기서 만나>는 다양한 지역의 맛집을 찾아 고기를 부위별로 파헤치고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고기의, 고기에 의한, 고기를 위한 방송인 셈. '먹부심 1인자'이자 '먹방의 대가'인 개그맨 강호동,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텐션의 대세' 뮤지컬 배우 김호영, 그리고 '국악요정' 송소희가 출격해 고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색다른 캐미를 보여 준다.

첫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부위 중 하나인 '삼겹살'을 다뤘다. 이날 세 명의 출

연자는 함께 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오직 '고기'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뜰뜰 뭉쳐 고기 맛의 비법을 낱낱

이 파헤쳤다. 고기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만큼 고기를 맛있게 즐기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풀어냈다.

제작진은 "맛집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고기만큼 보편적이고 강력한 음식은 없다는 믿음으로 <고기서 만나>를 기획했다"며 "이 세상 모든 고기와 부위를 최상의 맛으로 즐길 방법을 알고 싶다면 <고기서 만나>가 답"이라고 말했다.

<고기서 만나>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된다.

콘텐츠플러스센터 크리에이션1팀 이수호



①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 ②~④ 19층 DD큐브.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에 막혀 있던 벽면을 개방해 청계천과 주변 마천루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 '스마트'하게 탈바꿈한 광화문 사옥 회의실

### 20층 회의실 이름 'CC큐브' 유지…19층 회의실 새 이름은 'DD큐브'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 20층 회의실이 '스마트 멀티룸'으로 새 단장했다. 20층 회의실 이름인 'CC큐브'에 이어 19층 회의실은 'DD큐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각 회의실에는 2개 벽면에 163인치(가로 3.6m, 세로 2m) LED 스크린을 설치했고 초고 화질 영상 송출과 공유,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 또 기존에 막혀있던 2개 벽면 창문을 모두 개방한 파노라마 창을

통해 기다란 청계천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명품 조망이 완성됐다.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리모델링은 패드 하나로 목적에 따라 '디지털 원스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회의실은 각각 '편안한 시네마'와 '세련된 오피스' 콘셉트로 인테리어가 구현됐다. 19층 'DD큐브'에는 극장과 같은 계단식 의자와 바테이블을 배치해 짙고 캐주얼

한 분위기에서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20층은 시원한 대형공간으로 구성돼 30~40인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 적합하다.

한편 'CC큐브'와 'DD큐브'라는 이름에는 동아미디어그룹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가 담겨있다. C는 Contents Creating, Core Competence, D는 Donga Dream, Digital Drive 등 다양한 의미에 그 문을 열어뒀다.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 선성현

#### ▼ New face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상현/동아일보  
편집국



오영빈/채널A  
경영전략실



안규영/동아일보  
편집국



송우근/동아일보  
편집국



백상경/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이건희/동아일보  
경영전략실

① 출입처 관계자들이 "도청장치를 달았는가?"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정확한 기사를, 가장 빠르게 쓰는 게 목표입니다. 선후배들과 함께 독자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② 일본영화와 흥공영화입니다. 과거 명작들이 주는 여운을 느끼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③ 국민일보

① 꾸준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운 좋게 특종을 하거나 인맥으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수많은 도전 속에서 사람을 배우고 현장을 겪은 기자를 따라잡을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② 서툴지만 요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 요리 영상을 보면서 김치찌개, 소고기무국과 같은 간단한 음식부터 갈비찜, 완자스테이크 등을 만듭니다.  
③ 국민일보

① 두루 듣고, 깊이 고민하고, 잘 풀어내는 좋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직전까지 사회부 경찰팀에 있었던 만큼, 차기 국기수사본부장은 누가 될 것인지, 등 경찰 이슈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사회 변화상 등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③ 문화일보

①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에 합류한 백상경입니다. 기자 생활 13년차를 맞아 DBR에서 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 능력, 그간의 경험을 살려 '통찰이 있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ChatGPT의 등장으로 불 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AI 고도화 경쟁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산업계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③ 매일경제신문사

① 저는 입사 후 업무 전문 지식과 미디어 기업 스타디를 통해 경영기획팀의 업무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회계 및 경영 지식과 분석력을 활용하여 동아미디어그룹의 경영 전략과 의사 결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② 저는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시청과 유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콘텐츠의 다양한 유통 구조의 원인은 OTT 플랫폼의 성장이라 생각하고, 콘텐츠를 원하는 시점에 소비할 수 있어 편리한 여러 OTT 플랫폼을 직접 구독하며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박혜령/채널A  
편성전략본부



박혜린/채널A  
편성전략본부



조우빈/채널A  
편성전략본부



최민이/채널A  
편성전략본부

① 앞으로도 사원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청계천에서 점심 산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팀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만큼 더 성장하겠습니다. 디지털이노베이션 팀 사랑해요!  
②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들을 찾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따라서 영상, 글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① "여렷이 쌓은 발판 위에 올라설 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채널A의 멋진 선배분들과 얘기하고, 생각 나누며, 쑥쑥 성장하는 편성 PD가 되겠습니다.  
② 스포츠는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건 펜싱 체험이었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배워보고 싶어요. 같이 관람하거나 운동하실 분 언제든 연락주세요! :)

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거침이 없는 채널A에 합류하게 되어 설립니다. 채널A가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편성 PD가 되겠습니다!  
② 인턴 중 점심시간에 수많은 헬스장 전단지를 받을 때면 입사하게 되면 운동부터 등록해야지! 하며 마음을 굳혔었는데요. 이제 입사한 만큼 운동할 곳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①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됐을 때 괴로워하면 고집이고, 연구하고 다시 시도하면 그건 주관이다. -법륜" 주관있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브런치에 글을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주로 영화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쓰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① 오늘의 마음가짐 그대로 항상 성장하는 편성 PD가 되겠습니다!  
②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 DAMG 수상소식

동아일보 법조팀 한국신문상 수상



면접국 사회부 법조팀(황현준 차장, 유원모 고도에 장은지 신희철 권오혁 박종민 기자)이 4월 6일 서울 종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2023년 한국신문상'을 수상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체정)는 본

보가 지난해 보도한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를 뉴스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 히어로콘텐츠 4기팀, '마음의 날' 올해의 기자상 수상



'안인득 방화살인, 그 후 1068일의 기록'을 보도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4기팀(이사생 신희철 김재희 위은지 남건우 송은석)이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23 마음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 채널A B&C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관왕



채널A B&C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방송 <나의 선택 2022>와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로 3월 24일 열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3'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winner)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진한 기자  
대통령 표창



조건희 기자  
사랑의  
금십자상



편집국 정책사회부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사진)가 4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편집국 정책사회부 조건희 기자(사진)가 3월 29일 제약기업 한독과 서울시의사회가 선정하는 제54회 '사랑의 금십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